

우리 협회, 관세청과 테러방지협력 MOU체결 - 테러물품 밀수적발·통보때 포상금 등 지급 -

우리 협회와 관세청은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용섭 관세청장은 지난 4월 29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협회를 비롯한 8개 민간업체 대표들과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번 MOU체결 배경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세관관련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세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지연, 추가비용, 고객감소 등은 우리 협회 및 소속회원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MOU체결업체와 종사자가 테러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적발·통보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마약은 1억원)하고, 우수 MOU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없는(P/L) 수입신고대상업체로 지정되도록 수입업체 평가등급 산정시 반영 △수입신고시 세관검사 생략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 선별시 우량기준으로 등록 △수입적하목록 C/S선별시 우량기준으로 등록 등의 관세행정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MOU체결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두 기관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 서로의 업무와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 우리 협회의 설비 또는 직원들이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등의 불법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교환을 실시한다.
- 동 양해각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지침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C/S예절교육, 인기높아



C/S(Customer Satisfaction)예절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도 우리 협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C/S예절교육을 처음 도입하여 당초 분기별로 년4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동 교육수강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등 업계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에 따라 교육일정을 매월 실시기로 조정하였으며, 6월 현재 벌써 4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회원사중 S사는 40여명의 전 임직원이 동 교육을 수강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

편 동 교육은 4시간으로 짜여져 있으며 고객만족의 필요성(경쟁환경의 변화, 고객지향 경영, 성공적인 영업을 위해) 및 BUSINESS MANNER(인

사, 전화, 대화예절, 내방고객 응대요령, 용모복장, 상담요령등)로 구성되어 있다.

Security Surcharge 부과 폐지 요청 - 국적항공사 및 건교부에 -

우리 협회에서는 항공사에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Security Surcharge(보안 할증료)를 폐지토록 국적항공사에 요청하였고 건교부에도 이를 수용토록 건의하였다.

지난해 10월부터 항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보안할증료는 테러위험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명목으로 전쟁위험이 소멸시한까지 부과기로 도입되어, 무역업체들은 그동안 항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 할증료를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전쟁위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며, 건교부 또한 아직까지도 전쟁 또는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보험 시장이 안정화 된 연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Surcharge 부과가 장기화 될 경우 수출 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무역업체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많은 우려가 예상된다.

한편 해상운송에 있어 선사들은 금년초부터 동 할증료를 폐지한 바 있다.

수입항공화물(현도화물)THC, 인하 및 징수재고 요청

우리 협회에서는 항공사 및 장치장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입현도화물에 대한 THC징수에 대하여 지난 4월 이의 하향조정 및 재고를 요청했다.

최근 항공사 및 조업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 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 장치장에서 수입화물 취급에 따른 하역, 보관, 상차등의 각종 부대요율을 총칭하는 명목으로 Kg당 35원의 THC를 징수하고 있어 물류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수입현도화물은 「보관」이 전혀

개재되지 않으며 「상차」작업 역시 현재까지 항공사나 장치장에서 행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업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화물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래 운임이란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화물을 인수한 지점부터 도착지 공항에서 하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지점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운영비 및 모든 비용(하주의 선택권이 전혀 없는 부분)이 운송 원가에 반영되어 산출되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적화물처리절차 간소화 건의
- EDI로 정정신고되어야 -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환적화물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의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현행 환적화물의 수량 또는 중량 변경 신고시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정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인한 화물처리시간이 지연됨은 물론 불필요한 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EDI 프로그램을 통한 ON-LINE

상의 정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환적화물이 일반화물과 구분없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이 혼동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시간이 지연되므로 환적화물에 한하여 집하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별도 분리·운용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제3기 KASA 출범
- 구주, 호주, 중국까지 서비스 추가 -

'98년 미 해운개혁법안(U.S. Ocean Shipping Reform Act 1998) 개정이후 설립된 KASA가 지난 5월1일부터 제3기 업무를 시작했다. 43개 복합운송업체로 구성된 제3기 KASA는 현대상선을 비롯하여 Senator Line, COSCO, CMA/CGM, China Shipping 및 Evergreen 등 6개 선사와 S/C를 체결했으며, 제3기 KASA에서는 기존의 유럽에 이어 호주, 중국까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제3기 KASA는 올해부터 추가로 제공하는 호주 Bound에는 호주 국영선사인 ANL과 현대상선, COSCO, 중국 Bound에는 COSCO 및 China Shipping과 업무를 협조키로 했다.

제2기 KASA 가입사들의 선적물량은 현대상선 314TEU를 비롯하여 총 2,296TEU이며, KASA가입사들의 물량증가는 곧 중소포워더의 가격경쟁력과 정보공유, 대(對) 선사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당초 KASA의 설립취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Shippers' Association)는 북미수출화물에 대한 미해운법의 개정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설립되었으며, 작년에는 일본복합운송협회(JIFFA)에서도 우리 협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선사별 해상화물 선적실적> ('01. 5~'02. 4, 단위 : TEU)

구 분	HMM	Senator	Evergreen	COSCO	CMA	China	Zim	계
MQC	1,000	1,000	1,000	800	300	500	200	5,000
기간(5-4월)	314	86	362	632	386	457	59	2,296
비 율(%)	31.4%	8.6%	36.2%	79%	127.3%	91%	29.5%	45.92%

복합운송관련 법령집 제작 · 회원사에 배포

우리 협회에서는 복합운송업체가 동 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문 등을 발췌하여 법령집을 제작, 지난 5월 회원사에 1부씩 배포했다.

2002년도 본회 사업계획에 의거 홍보출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복합운송관련 법령집은 화물유통촉진법을 비롯하여 해상운송과 관련된 상법, 항공운송과 관련된 바르샤바조약 헤이그 의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통관과 관련된 관세법, 세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각종 주요 고

시로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부산광역시세조례),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우리 회원사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포워딩실무교육 부산에서 실시

- 5.20 ~ 24, 5일간 30시간 -

복합운송업계 부산지역 종사원을 위한 해상포워딩 실무교육이 지난 5월 20일 부산 해기사회관 연수실에서 입교식을 갖고 5일간 30시간 실시됐다.

우리 협회는 부산지역 회원사 소속 직원들을 위해 복합운송론(6시간) · Forwarding Operation(12시간) · 선하증권작성(6시간) · 무역실무(6시간) 등 4과목에 걸쳐 기초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KIFFA 김국남 이사를 비롯하여 차창화 부산지회장(해륙해운항공), 이광태

부회장(남성해상) 등과 수강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 교육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으므로써 이 과정을 수료한 복합운송업체에서는 교육훈련비(13만원)의 약 60%를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원받는다.

한편 KIFFA는 지난 1989년, 1990년, 2001년에 각각 1회씩 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이 4번째이다.

복운업계, 물류산업시찰

- 5월 28일, IACC 등 5개 물류창고시설 견학 -

우리 협회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하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8일 김창목 전무를 비롯하여 회원사 임직

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 창고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첫번째 방문한 IACC(Incheon Air Cargo



Complex)는 인천 용현동에 위치하여 수도권화주를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108,000평 단지내 보세 및 일반창고 4,000평을 갖춘 경인지역의 최대규모의 시설로서 공항업무, 보세운송, 창고보관, 통관, 배송등 수입일관서비스가 가능하며 타창고보다 빠른 서비스와 저렴한 보관료 및 입지로 인한 배송료 절감으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두번째 방문한 군포시 부곡에 위치한 한국복합화물터미널은 110,000평의 연면적에 8개동의 화물취급장, 14개동의 배송센터, 1.05km의 철도인입선등 대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통관, 정보 등 일관작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복합화물터미널은 화물자동차 터미널인 동시에 철도화물 기지이며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최신 최고의 시설로서 전

혀 손색이 없다.

세번째 방문한 복합화물터미널 근방에 있는 경인ICD는 연간 100만 TEU의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내륙컨테이너 기지로 수출입화물의 보관, 집하, 운송, 배송 등 종합물류센터의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항만시설 보완과 육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하여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물류난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번째 방문한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양지물류는 12,500평 규모의 부지에 하이랙 시설(High Bay Rack)을 갖춘 6개동의 일반창고, 보세창고, 위험물창고, 냉장, 저온창고 등의 각종 창고를 보유, 고객의 자본과 경비절감은 물론 손해 및 위험방지와 함께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번째 방문한 이천에 위치한 덕평물류는 일반창고, 보세창고, 위험물창고, 냉장창고, 난방창고를 동일센터 내에 보유하여 다양한 상품취급이 가능하며 수입업무 대행, 수입통관업무, 보관, 배송까지 Total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을 관리하며,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입출고, 재고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많은 인원이 참석치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본 견학을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본 견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5개 물류창고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많은 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협회고문변호사, 고문세무사 신규 위촉 및 변경
- 법무법인 김·신·유 및 법무법인 아람, 세무법인 세경-

지난 5월 우리 협회의 고문변호사와 고문세무사가 추가로 선임 또는 변경되었다.

추가로 위촉된 법무법인 김·신·유 소속 유록상변호사는 해상운송에 관련된 자문을 담당하

고 법무법인 아람 소속 손경한변호사는 항공운송에 관련된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협회고문세무사는 세경 세무법인 소속 권지선 미국공인회계사로 변경, 선임하였다.

앞으로 우리 회원사는 화물운송 중에 훼손, 지연, 분실 또는 오송등 각종클레임에 관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으며, 또한 화물운송과 관련한 제반 세무자문도 협회사무국으로 법률 또는 세무상담신청을 하면 별도의 상담료 없이 무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법률자문인 경우 1회 60분 이내 법률자문 가능-선착순)

한편 지난 5월 30일 변호사 신규 선임이후 처음으로 수출입화물 운송관련 법률상담이 협회연수실에서 실시되었다.

22번째 실시된 이번 상담에는 5개사 8명이 참석하여 해상운송과 관련된 6건에 대하여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법무법인 김·신·유 소속 유록상변호사가 상담했다.

운임 장기미납업체 및 해외포워더 주기적으로 공개
-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

지난 한달간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합운송업계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임을 장기간 체납하는 무역업체 및 해외포워더 명단을 공개하였다.

우리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장기간 운임을 체납한 무역업체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이행을 하지 않는 해외포워더 명단이 접수되면 무역업체인

경우는 해당 무역업체에, 해외포워더인 경우는 해외포워더 및 해당국가의 포워딩협회에 일정기간까지 납부토록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없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협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내장기미납업체 현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미수금액(원)
1	(주)케이엔엘쉬핑	김정하	서울 중구 32-2 건강건설회관 503호	02-318-1472	2,233,252
2	램스코리아	이규향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6-24 18/4		1,372,144
3	서영상사	김머숙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1-10	02-518-1516	1,395,106
4	다경물산	신용원	서울 종로구 송인동 318-1 마동빌딩 609호		871,540
5	일일신택스타일	김규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8-9 천흥빌딩 3층	02-3473-0637	1,642,760
6	동양실업	임계환	서울 중구 신당동 49-7	02-2252-5247	2,141,750
7	광림섬유	이춘섭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43 4층	02-426-3500	851,700
8	유원상사	이주형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0-2 2층	02-455-6864	2,254,090

협회비 장기미납업체 회원제명
- 6사, 4년이상 미납 -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0일자로 협회비가 4년 이상 미납된 6개사를 회원에서 제명하였다.

지난 5월 16일 개최된 협회 2002년도 제2차

이사회회의 의결사항으로 최근 협회비가 과다하게 미납 누적되어 일부 사업에 차질이 초래되는등 협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협회비등을 납부하여 주신 대다수의 회원사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있어 협회비가 4년 이상 체납된 업체를 협회정관 제10조(회원에 대한 제재)에 의거 회원에서 제명키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알뜰히 집행,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납된 협회비를 수시로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동업체는 그동안 협회에서 지원해준 각종 행정업무(각종 연수교육 및 교재, 화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시 할인혜택, 공항 임시출입증 또는 고정출입증 발급, 대리점표준계약서, 장치장에 3code통보업무, 법률 및 세무상담, 대정부 민원업무등)가 중단되고 또한 협회에서 제정한 KIFFA B/L 및 FCR을 비롯하여 FIATA B/L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회원 제명업체 현황

번호	회 사 명	대표이사	주 소	전 화
1	국민해운(주)	나형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5 삼정빌딩 1702호	02-778-7277
2	류진해운항공(주)	이정웅	서울 중구 남창동 169-2 삼선빌딩 806호	02-319-2121
3	(주)벨레스코리아	곽종근	서울 중구 신당동 101-7 동원빌딩 202호	02-2233-2631
4	콜트라스(주)	문영목	서울 강남구 삼성동 54-2 청진빌딩 406호	
5	(주)트라이톤퍼시픽	탁현재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522호	02-756-1050
6	한일항운(주)	김영찬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4-32	

평택항 서부두내 CFS 및 보세창고 개장
- 1,500평규모, 부두내 직통관서비스 제공 -

평택항 서부두내에 LCL화물과 일반화물, 냉장화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1,500평규모의 보세창고가 들어서 5월 7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20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평택항 서부두 인근에 CFS 417평, 일반창고 1,016평, 냉장창고 91평의 규모에 보세창고를 완공했다.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에 위치한 동 보세창고

는 ON-DOCK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직통관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저렴한 창고보관료 적용과 보세장치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택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물류비 절감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부두운영현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주가 직접 내륙운송을 통해 배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